

최근에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실태가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을 적지 아니 놀라게 하였으며 또 이민수속을 하고 계시는 분 혹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열려와 주저와 의문을 던져 준 것 같다. 물론 그 기사가 직접으로 간호원의 생활에 관한 것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보편적이고 사실과 거의 동일하다는데 필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십여년 동안 RN으로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고국에 돌아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남편과 함께 지난 6월에 귀국하였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대로 조국은 무한히 변하였고, 발전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새삼 무엇인가 하고픈 의욕을 느꼈다.

필자가 지금 필을 듣게 된 것은 미국에 대한 동경과 계획에 실망과 좌절을 갖게 하는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좀더 현실을 잘 파악하여 미국에 가서 좀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소견을 펴고자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며 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덕히지 않고 그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막연한 기대나 정확하지 않은 소식에 현혹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

간호원과 미 국 이민

김 후 자

<본회 RN반 강사>

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많은 기회가 있으며 노력하면 노력의 댓가를 받는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은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며,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십년전 미국을 향해 떠났을 때 조그마한 가방 하나와 현금 \$100을 가지고 떠났다. 지금 물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가 준 반응이었다. 그 당시 필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급변한 현실에 어리둥절 하였으며 많이 후회를 하였다. 나는 사실 동경과 꿈만 가득하고 남들이 좋다고 가는 사이에 덤으로 끼어 들어 간 것이다.

조국을 등지고 멀고 먼 태평양을 건너고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는 그 자체에 최대의 노력을 다했을 뿐 과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에 불과하였다.

정말로 당황할 때도 많았겠고 바보같은 행동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행히 초청 간호원으로 갔기 때문에 직장이 보장되고 거기다가 숙소까지 걱정이 없었다. 그때 비하여

현실은 십년전과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변하였으며 그것도 우리 간호원들에게는 불리한 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십년전 그 당시 미국은 간호원 부족으로 외국 간호원을 환영하여 많이 받아들였으며 다른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시기였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모자라는 간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이민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대학에서 상당한 수의 간호원을 배출시켰다.

그 결과로 지금은 간호원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 된 것이다. 100% 취업율을 자칭하던 간호원들이 지금은 직장을 찾아 시골로, 혹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하는 현실이 되었다.

과거에는 면허증 없이도 임시 채용을 하여 취업이 가능하였으며 또 일하면서 시험준비를 하여 큰 어려움 없이 면허를 취득했는데, 지금은 면허증 없이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또 면허증이 있어도 경험이 없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미국 자체가 간호원을 필요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고 또 이민으로 들어오는 간호원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 결과는 새삼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강 짐작

이 가리라 믿는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준비와 충분한 사실파악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떠난다면 어려움은 훨씬 적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상당한 수의 간호원이 미국에 가서 원하는 직장이 되지 않아 간호보조원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들 중 대부분이 자녀들이 많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중년의 분들로써 면허시험에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간호원 면허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기초 지식과 영어해득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과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능력을 잘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의 능력 즉, 면허취득여부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 자신들이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잘 평가해야 한다. 물론 능력개발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지금 RN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class의 강사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수강자가 강의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강의 내용에도 기초개념을 익히고 재 정리하는 것보다 임기응변적으로 시험 문제점에만

위주하여 해석과 정답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수강자들이 많아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고심했다.

미국 간호원 면허시험은 시험문제집만 암기해서 합격되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보다 넓고 깊은 전반적인 간호지식 없이는 합격이 불가능하게끔 그 문제들이 다양하고 또 시시로 변하고 있다. 또 충분한 지식이 있더라도 영어해득이 부족하여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던 포레위에 쌓은 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충분한 영어해득력과 간호지식이 병행하여야만 우리는 문제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문제가 면허증 획득이라면 들체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취업을 위한 면접과 취업후의 근무생활을 위하여 Communication skill을 익혀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우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아직도 더 남았다. 과연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른 미국생활에서 일어나는 Complex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며 너무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의 소외감에서 오는 Stress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을 몇명 보았다. 어떠한 어려움과 여건 아래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미국

의 생활은 오직 직접 체험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다.

한번 더 하고 싶은 말은 막연한 소리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믿을 수 있는 분들로 부터 정확한 실태소식을 참고로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월급과 세금,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족생활의 어려움점은 무엇인가 하는 동등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이 이국생활에 적응하기에 바빠서 자녀들 교육에 미쳐 다음을 쓸 여유가 없으므로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쉽게 동화되는 자녀들에 비해 부모의 몸에 배인 전통사상과 도덕관념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소비감, 갈등으로 많은 이민가족들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민은 그렇게 문제를 가진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다만 충분한 면허시험 준비와 영어실력과 마음의 준비 그리고 가족적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민간다면 낯선 이민 생활이 좀더 밝게 편안하게 그리고 빨리 적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한국 간호원들이 미국의 각처에서 각광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그 분들이 뒤에서 많이 밀어주리라 믿는다.

P.S :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은 간호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